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직, 간접전이에 관한 연구¹⁾

The Examination of Direct and Indirect Transmission Processes of Intergenerational Marital Instability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金恩敬

Iowa State University, Dept. of Human Dev. and Family Studies

교수 Peter Marti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Full-time Instructor: Eunkyung Kim

Iowa State University, Dept. of Human Dev. and Family Studies

Professor: Peter Martin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연구결과 및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test a model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An important aspect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the direct and indirec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es of marital instability. This study revealed four very important findings. First,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marital instability were both direct and indirect through mate selection risk factors, marital quality, and marital commitment. Second, premarital background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and relative heterogeneity between spouse before marriage, were important to explain one's marital relationship. Third, the higher the barriers, the higher the marital commitment. Fourth, marital quality and marital commitment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marital instability. Taken together, this study supports the

1) "이 논문은 1994년도 Iowa State University 박사논문의 일부임"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erspective that exposure to conflict marriage in one's own childhood would forecast lower marital satisfaction, higher conflict and higher marital instability in the marital relationship.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lso underline the importance of predisposing marital characteristics, such as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relative heterogeneity, in explaining marital relationship.

I. 서 론

대부분의 서구사회는 이혼의 합법화 이후 급속한 이혼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혼이 가족실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0년대 미국의 경우 첫번째 혼인의 약 50%가 이혼으로 끝이 난것으로 나타났다 (Norton & Mooreman, 1987). 이혼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이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960년대 초기 22%에서 1980년대에 46%로 두배이상 증가했으며 (Bumpass, 1984). 매년 1,1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Kunz, 1991).

이혼 또는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중 가장 일관성있게 주장되고 있는 이론은 부모의 이혼이 성인자녀의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대간의 전이 (Meyer, 1988) 관점이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혼이나 별거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Kulka & Weingarten, 1979; Kunz, 1991; Pope & Mueller, 1976). 선행연구들이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불안정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데 동의의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불안정성이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어떻게 전이되는가 하는 전이과정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연구하였는데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지기 싫어하며, 배우자간의 의견에 대

한 불일치가 높고, 결혼생활의 질과 행복도가 낮으며 (Amato & Booth, 1991a),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혼을 대안으로서 쉽게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Kunz, 1991). 또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자와 결혼하는 경향이 높으며 (Keith & Finlay, 1988; White & Booth, 1991a), 결혼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를 경험했으므로 성공적인 결혼이나 결혼생활의 안정감에 대한 기대없이 결혼을 하기가 쉬운것으로 나타났다 (Glenn & Kramer, 1987).

결혼불안정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으로 Levinger (1976)의 이론이 있다. 교환이론을 바탕으로한 Levinger의 이론은 이혼이 결혼에 있어서 부부상호간의 결합성 (보상) 뿐만 아니라 결혼해체에 대한 방해와 결혼에 대한 대안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결혼의 매력적인 요인은 남편의 수입, 높은 학력, 애정, 사회적 지위등을 포함하며, 결혼해체의 방해요인은 결혼에 대한 의무감, 도덕성, 교회출석여부나 사회로부터의 압력등을 들 수 있고, 결혼에 대한 대안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자의 존재, 아내의 수입등을 들 수 있다 (Lewis & Spanier). Levinger에 의하면 결혼에 대한 매력요인이 (보상) 감소하고 방해요인이 점차 약해지고 결혼에 대한 대안이 존재할 때 개인의 결혼해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결혼해체과정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똑같은 방해요인과 대안을 가지고 어떤 결혼은 별거나 이혼으로 끝나고 어떤 결혼은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배우자간의 결혼 전의 배경을 고려한 세대간의 전이관점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에 영향을 미쳐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자녀들은 비교적 높은 교육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ith & Finlay, 1988). Lewis 와 Spanier (1979)에 의하면 부부간의 나이차가 클수록 결혼의 질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이차이가 많지 않을 경우 사회적 동질성은 대인관계를 강화하고 같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게 함으로써 마찰을 피하게하기 때문이다.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일관성있게 부모의 이혼과 자녀세대의 결혼불안정성의 상관관계를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관관계가 그리 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선행연구들이 자녀들의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부모들의 이혼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부모들의 이혼은 자녀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배우자선택 위험요인 (Muller & Pope, 1971), 결혼생활의 질 (Booth & Edwards, 1989)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 (Lewis & Spanker, 1979)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결혼불안정성간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족내에서의 이혼의 세대간의 전이의 과정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네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직, 간접적인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 결혼의 질과 결혼에대한 책임감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치고 있음을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세대간의 전이관점과 Levinger가 제안한 교환이론을 결합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한 모델을 개발하여 그 모델의 적합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들이 횡단적인 (Cross-sectional) 디자인으로 인과관계나 발달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으므로 본연구는 장기적인 (longitudinal) 연구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변인들간의 시간적인 순서를 명확히 함

으로써 논리적인 인과관계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넷째, 선행연구들의 경우 비교집단이 없이 부모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결혼의 불안정성을 연구해 그 결과를 비교하거나 일반화시킬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기혼자와 경험하지 않은 기혼자들을 다 포함시키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이론적 인과관계 개념모델

부모의 이혼은 성인자녀의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한 이론적인 인과관계 개념모델 (그림1)을 개발하였다. 이 이론적모델은 Edwards와 Saunders (1981)의 사회심리학적 모델을 기초로하고 세대간의 전이관점과 Levinger의 교환이론을 결합하여 개발되었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전생애에 걸친 결혼불안정성 연구를 위해 Amato와 Booth(1991b)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이 연구는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random digital dialing방법을 통해 접촉한 미국 전역에 걸친 55세 이하의 2,033명의 결혼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80년 조사의 경우 응답율은 65%였으며, 1983년에는 모집단의 78%인 1,578명이 조사에 응했고, 1988년의 세번째 조사에는 첫번째 조사대상자의 65%인 1,341명이 조사에 응했다. 1980년과 1988년 조사대상자들 사이에는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mato & Booth, 1991b).

본 연구에는 세번의 연구에 다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중 현재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친모나 친부 또는 친부모에의해 양육된 816명의 조사대상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316명의 남성과 500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11.9%인 97명이 18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이나 완전한 결별을 경험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38.1세이고 20대와 30대가 64.6%, 40대가 23.1%, 50대가 12.3%였다. 교육정도를 보면 85%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력을 가졌고, 14.2%가 대졸이상의 교육정도를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수입은 \$34,327이었으며, 결혼기간은 평균 20.6년이었고 초혼평균연령은 21.3세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이론적모델은 6개의 외인성(exogeneous) 변인 - 부모의 이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배우자간의 이질성, 이혼방해요인, 경제적 독립성, 대안적인 배우자 - 과 네개의 내인성(endogeneous) 변인 -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 결혼의 질, 결혼에 대한 책임감과 결혼의 불안정 - 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변인들은 잠재변인으로서 한개 이상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부모의 이혼”은 조사대상자들의 부모의 이혼여부를 묻는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묻는 두개의 측정변인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 두 측정변인은 학교에 다니는 해수를 묻는 계속적(continuous) 변인이다. “배우자간의 이질성”은 배우자간의 나이의 차이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혼방해요인”은 Amato와 Booth (1991b)에 의해 개발된 marital bond 항목중 결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존도, 종교적 믿음,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혼에 대한 불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3가지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Chronbach's Alpha로 살펴본 신뢰도는 .50이었다. “경제적인 독립성”은 전체 가족의 수입중 아내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측정되었고, “대안적인 배우자”는 새로운 남편이나 아내를 찾는데 얼마나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은 조사대상자들의 초혼

시의 연령,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배우자의 학력의 세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질”은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어지며 11문항의 결혼행복도, 5문항의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4문항의 의견의 불일치와 13문항의 배우자간의 문제점의 4개의 하위도구에 의해 측정되었다. 신뢰도계수는 각각 .89, .63, .54, .76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음을 나타낸다. “결혼에 대한 책임감”은 조사대상자들의 이혼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4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높은 점수가 높은 책임감을 나타내고 신뢰도는 .51이었다. “결혼 불안정성”은 인지적측면과 행동적 측면 둘 다를 포함한 이혼에 대한 성향으로 정의되며 1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불안정을 나타내고,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모델은 연구변인들간의 인과관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해 3개의 서로 다른 시간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결혼전의 변인들과 관련된 데이터는 첫번째 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결혼후의 변인들 중 결혼의 질, 이혼방해요인, 대안적인 배우자는 두번째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결혼에 대한 책임감과 결혼불안정은 세번째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관계 특히 결혼불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기적인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LISREL VII를 사용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론적모델의 전체적인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LISREL VII은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다음의 세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가 (예를들어 잠재변인인 결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변인인 결혼행복도,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의견의 불일치, 배우자간의 문제점의 관계) 고려되어 분석됨으로써 잠재변인에 대한 각각의 측정변인과의 관계설명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이순목, 1990). 둘째, 모델의 적합성과 관련된 통계적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의 정확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모델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Hayduk, 1987). 셋째, 지금까지의 분석방법은 내인성변인과 외인성변인간의 관계만을 고려했지만 LISREL VII은 내인성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LISREL VII에서 모델의 적합성은 Chi-Square의 결과와 모델의 적합성 지표인 GFI (Goodness of Fit Indices), 모델에 있는 변인의 숫자를 고려한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ices)에 의해 평가된다. 만일 GFI와 AGFI가 0.9보다 높으면 그 모델은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이된다 (Bollen, 1989).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경로의 통계적 의미는 t-테스트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각의 t값이 +1.96보다 크면(-일 경우 작으면) 그 경로는 통계적 의미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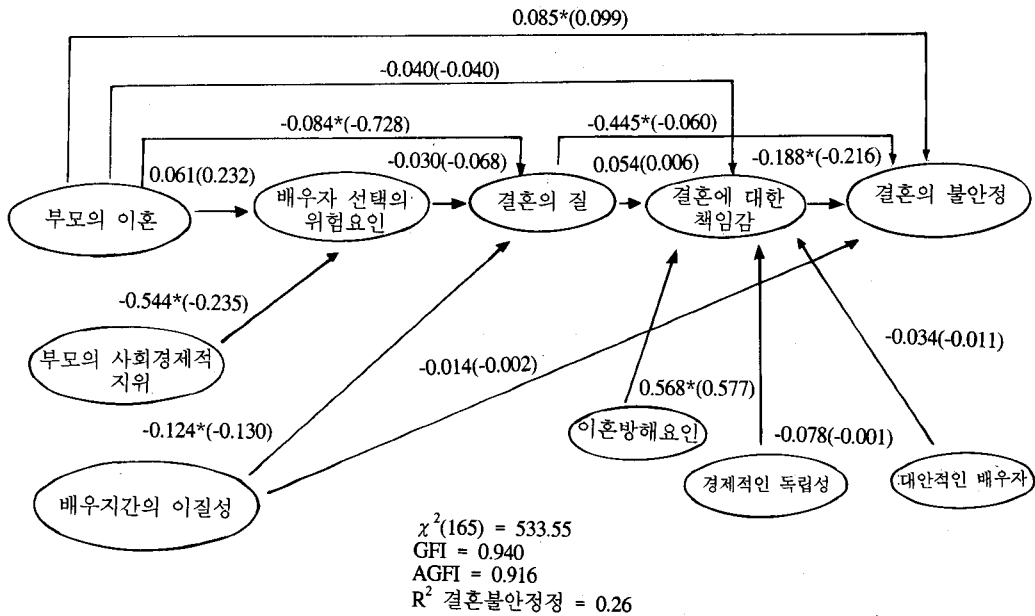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21개의 측정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이 결과는 각각의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모델을 검증하는 첫 단계는 각각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는데 확인적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한 측정모델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측정모델의 적합성은 다양한 적합성지표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데 Chi-Square 측정치가 $\chi^2(165, N=816)=533.55, p<.001$ 로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GFI가 0.94, AGFI가 0.916으로서 이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좋은 모델임이 입증되었



<그림 1> 결혼불안정성의 이론적 인과관계 개념모델

주 :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1〉 측정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부모의 이혼	1.00																					
2. 아버지의 학력	-.03	1.00																				
3. 어머니의 학력	-.01	.54**	1.00																			
4. 배우자간의 나이차	.00	-.06	-.09**	1.00																		
5. 조사대상자의 의존성	-.01	-.11**	-.10**	-.03	1.00																	
6. 종교적인 믿음	-.01	-.12**	-.16**	-.09*	.28**	1.00																
7. 가족의 이혼에 대한 불허	-.07	-.08*	-.12**	-.01	.26**	.20**	1.00															
8. 아내의 수입	-.03	.05	.05	-.03	-.03	-.06	.04	1.00														
9. 다른 배우자 찾을 가능성	.11**	.00	.03	.09*	-.08*	-.05	-.01	.04	1.00													
10. 초혼시의 연령	.05	-.14**	-.12**	-.14**	.04	.02	.02	-.03	-.04	1.00												
11. 조사대상자의 학력	.05	-.37**	-.32**	.10**	.20**	.09**	.11**	-.13**	-.05	.35**	1.00											
12. 배우자의 학력	.11**	-.28**	-.19**	.10**	.09**	.06	.07	-.06	.01	.21**	.50**	1.00										
13. 결혼행복도	-.03	.07	.05	-.13**	.11**	.12**	.01	.02	-.09*	.00	-.05	-.12**	1.00									
14.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02	-.02	.02	-.06	.07	.07	.07*	.02	-.06	.00	.01	.00	.45**	1.00								
15. 의견의 불일치	-.07*	-.02	.01	-.04	.08*	.07*	-.01	-.02	-.02	-.04	.02	-.03	.46**	.26**	1.00							
16. 배우자간의 문제점	-.10**	.02	.02	-.09*	.05	.06	.07*	-.02	-.08*	-.06	-.05	-.10**	.49**	.30**	.52**	1.00						
17. 이혼을 쉽게 한다	-.05	-.09*	-.07*	-.05	.15**	.20**	.02	-.06	-.10**	.08*	.15**	.08*	.11**	-.01	.03	.01	1.00					
18. 이혼을 해도 좋다	-.04	.00	.08*	-.03	-.01	.15**	-.02	.02	-.10**	.08*	.04	-.02	.08*	.02	-.02	-.02	.41**	1.00				
19. 행복은 배우 중요하다	-.02	.07	.03	-.05	.05	.20**	.03	-.08*	-.02	-.09**	-.06	-.04	-.02	.02	-.02	.01	.11**	.16**	1.00			
20. 결혼의 영원하다	-.03	-.09**	-.10**	-.03	.11**	.33**	.14**	-.08*	-.01	-.07	.02	.06	.09*	.03	.11**	.08*	.27**	.16**	.39**	1.00		
21. 결혼불안정성	.14**	.09**	.05	.06	-.10**	-.13**	-.02	.03	.11**	-.01	-.06	-.02	-.34**	-.21**	-.30**	-.35**	-.15**	-.05	-.06	-.16**	1.00	
Mean	1.12	10.99	11.19	2.62	2.06	2.05	1.44	20.94	2.37	15.70	12.04	14.10	28.24	15.44	9.03	9.46	3.08	3.33	2.26	2.23	2.29	
Standard Deviation	.32	3.75	2.98	2.68	.76	.87	.68	22.22	1.00	3.18	2.48	2.62	3.88	2.82	2.25	2.43	.69	.64	.61	.63	.38	

주: *p<.05, **p<.01.

〈표 2〉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 (N=816)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	
부모의 이혼		
부모의 이혼	1.000	0.00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	0.765	0.415
어머니의 학력	0.703	0.506
배우자간의 이질성		
배우자간의 나이차	1.000	0.000
이혼방해요인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	0.421	0.823
종교적인 믿음	0.703	0.500
가족의 이혼에 대한 불허	0.325	0.894
경제적 독립성		
아내의 수입	1.000	0.000
대안적인 배우자		
다른 배우자를 찾을 가능성	1.000	0.000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		
초혼시의 연령	0.389	0.849
조사대상자의 학력	0.879	0.227
배우자의 학력	0.571	0.674
결혼의 질		
결혼행복도	0.725	0.474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0.483	0.767
의견의 불일치	0.660	0.565
배우자간의 문제점	0.714	0.490
결혼에 대한 책임감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한다	0.476	0.773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	0.362	0.869
행복은 매우 중요하다	0.462	0.786
결혼은 영원하다	0.663	0.561
결혼불안정성		
결혼불안정성	1.000	0.000
χ^2	533.55 (df=165)	
Goodness of Fit Index	0.940	
Adjusted GFI	0.916	

다. 다음 단계로는 본 연구의 이론적모델의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완전히 표준화된 회귀계수 (completely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를 보고하였으며 괄호안에 보고 되어진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standardized regression) 회귀계수이다. 표

준화된 회귀계수가 잠재변인만을 표준화시킨데 반해, 완전히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을 모두 표준화 시킨것으로 γ 는 내인성변인과 외인성 변인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이고 β 는 외인성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이다. 각각의 계수의 t값이 ± 1.96 보다 높을때(-일 경우 낮으면), 즉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때는 *으로 표시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괄호속에 포함시킨 이유는 표 3에서 보고 되어질 변인들간의 직, 간접적인 효과가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기초로 얻어진 값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이혼이 본 연구의 이론적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부모의 이혼은 성인자녀의 결혼의 질 ($\gamma = -0.084, p < .01$)과 결혼불안정성 ($\gamma = 0.085, p < .01$)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에 ($\gamma = 0.061$)과 자녀의 결혼에 대한 책임감 ($\gamma = -0.040$)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조사대상자가 어렸을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을 경우 결혼의 질이 낮고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혼에 문제가 있을경우 이혼이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결과는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 관점을 확인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또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배우자선택 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가 조사대상자를 현재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만으로 제한시킴으로써 이미 이혼이나 별거를하여 결혼관계를 끝내버린 사람들을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결혼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선택위험요인 ($\gamma = -0.544, p < .001$)과 매우 강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자녀는 어린나이에 교육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결혼하거나, 교육정도가 낮은 배우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

녀의 교육수준과 결혼연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Keith와 Finlay (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 결과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부모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점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교육을 획득하고, 적절한 나이에 결혼하게 되며, 교육수준이 높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이혼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배우자간의 이질성 즉 나이의 차이는 조사응답자의 결혼의 질($\gamma = -0.124, p < .00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간의 나이차가 결혼의 질을 낮춘다는 Falk (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배우자간의 이질성은 결혼불안정($\gamma = -0.014$)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나이차이는 결혼의 질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침을 추측할 수 있다.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은 배우자간의 결혼의 질($\beta = -0.03, p > .05$)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혼의 질은 조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책임감($\beta = 0.054, p > .05$)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결혼불안정($\beta = -0.445, p < .001$)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방해요인은 결혼에 대한 책임감($\beta = 0.568, p < .001$)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 결혼해체에 대한 방해요인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독립성은 결혼에 대한 책임감($\beta = -0.078, p < .10$)과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에 대한 대안은 결혼에 대한 책임감($\beta = -0.034, p > .05$)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에 대한 책임감은 결혼불안정($\beta = -0.188, p < .05$)에 중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본 것처럼 일곱개의 인과관계 경로가 통계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인과관계 경로들(paths)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그대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 일

곱개의 인과관계 경로가 중요하지 않아 이 모델은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이미 설명했듯이 $\chi^2(165, N=816)=533.55, p < .001$, GFI = 0.940, AGFI = 0.916의 지표들과 χ^2 에 대한 자유도의 비율($\chi^2:df=3.21:1$)을 고려해 보았을 때 데이터를 잘 설명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표 3〉 변인들간의 직, 간접적인 효과

종속변인/독립변인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A)	간접효과 (B)	총효과 (A+B)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			
부모의 이혼	0.232	0.000	0.23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235	0.000	-0.235*
결혼의 질			
부모의 이혼	-0.728*	-0.016	-0.74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000	0.016	0.016
배우자간의 이질성	-0.130*	0.000	-0.130*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	-0.068	0.000	-0.068
결혼에 대한 책임감			
부모의 이혼	-0.040	-0.005	-0.04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000	0.000	0.000
배우자간의 이질성	0.000	-0.001	-0.001
이혼방해요인	0.577*	0.000	0.577*
경제적 독립성	-0.001	0.000	-0.001
대안적인 배우자	0.000	0.000	-0.011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	0.006	0.000	0.006
결혼의 질		0.000	0.006
결혼불안정성			
부모의 이혼	0.099*		0.15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000		-0.001
배우자간의 이질성	-0.002		0.006
이혼방해요인	0.000		-0.125*
경제적인 독립성	0.000		0.000
대안적인 배우자	0.000		0.002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	0.000		0.004
결혼의 질	-0.060*		-0.061*
결혼에 대한 책임감	-0.216*		-0.216*

주 : *t-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은 경우

마지막 단계의 분석은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이론적모델에 있는 변인들간의 관계의 직, 간접적인 효과를, 특히 부모의 이혼의 질의 결혼불안정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표3에 제시되었다. 부모의 이혼, 배우자간의 이질성과 이혼방해요인이 결혼의 불안정성에 중요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은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 결혼의 질,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통해 간접적($\beta=0.054$, $P<.001$)으로 성인자녀의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고 이 같은 간접효과는 전체효과의 35%에 달했으며 가장 중요한 간접효과는 결혼의 질을 통해서였다. 이 결과는 이원상관관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조사응답자들은 부모의 실패한 결혼 생활이 자녀들에게 적절한 배우자로서의 역할모형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높은 의견불일치와 문제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협력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의 불안정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간의 이질성은 결혼의 질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통해 결혼의 불안정성에 간접적($\beta=0.008$, $p<.01$)을 미치며, 이혼방해요인은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통해 결혼불안정에 간접적($\beta=-0.125$, $p<.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부모의 이혼의 자녀의 결혼불안정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전이과정을 규명하여 부모자녀간의 결혼불안정의 세대간의 전이과정을 이해하고자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간의 전이관점과, 교환이론의 개념을 결합하고 결혼이전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결혼불안정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 결혼의 질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 특히 결혼의 질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의 결혼불안정의 세대간의 전이과정을 확인했다. 둘째, 결혼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이 높고 결혼전 부부간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낮은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결혼전의 배경이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셋째, 이혼방해요인이 많을수록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의 질이 높고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때 본 연구는 이론적모델에서 설명한것처럼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가 성장한 후의 결혼관계에서 높은 갈등과 높은 결혼불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세대간의 전이관점(Meyer, 1988)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배우자간의 이질성과 같은 결혼전의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환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즉 결혼에대한 매력정도(결혼의 질)과 이혼방해요인은 결혼불안정의 중요한 예측요인이었으나 교환이론과는 상이하게 대안적인 배우자의 가능성은 결혼에 대한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선례연구들의 여러가지 취약점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자기보고(self-report)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기보고가 가지는 불확실성과 다양한 형태의 반응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둘째, 현재 결혼을하고 있는 사람만을 조사대상자로 삼아 이혼이 자녀의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차적인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책임감은 현재의 결혼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태도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추상적인 관점을 측정하여 그 변인과 다른 변인들 사이의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낳았을 수도 있다. 넷째, 결혼에 대한 책임감과 이혼방해요인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 이 두변인과 관련된 결과들을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이순목 (1990). 공변항구조분석, 성원사.
- 2) Amato, P. R., & Booth, A.(1991a).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ttitudes toward divorce and

- gender ro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306-322.
- 3) Amato, P. R., & Booth, A. (1991b).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well-being. *Social Forces*, 69, 895-914.
 - 4) Amato, P. R., & Booth, A. (1991b).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well-being. *Social Forces*, 69, 895-914.
 - 5)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6) Booth, A., & Edwards, J. N. (1989). Transmission of marital ards, J. N. (1989). Transmission of marital and family quality over the generations: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and unhappiness. *Journal of Divorce*, 13, 41-58.
 - 7) Edwards, J. N., & Saunders, J. M. (1981). Coming apart: A model of the marital dissolution deci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379-389.
 - 8) Falk, G. (1975). Mate selection in America. *International Behavioral Scientist*, 7, 68-80.
 - 9) Glenn, N. D., & Kramer, K. B. (1987). The marriage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11-825.
 - 10) Keith, V. M., & Finlay, B. (1988).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timing, and likelihood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7-809.
 - 11) Kulka, R. A., & Weingarten, H. (1979). The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in childhood on adult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5, 50-77.
 - 12) Kunz, J. (1991). The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In S. J. Bahr (Ed.), *Family Research* (Vol. 2, pp. 325-376). New York: Lexington Books.
 - 13)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pp. 268-294). New York: The Free Press.
 - 14) Meyer, H. J. (1988). Marital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Developmental history, parent personality, and child difficultness. In R. A.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pp. 119-139). Oxford: Chredon Press.
 - 15) Norton, A. J., & Mooreman, J. E. (1987). Current trends in American marriage and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3-14.
 - 16) Pope, H., & Mueller, C. W. (197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Comparison by race and sex. *Journal of Social Issues*, 32, 49-66.
 - 17) White, L. K., & Booth, A. (1991). Divorce over the life course: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5-21.